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9호 [루게 제2665호]

주제 110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음력 8월 1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태양의 궤적은 변함없이 흐른다



한 나라 역사에서 10년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허나 공화국은 이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나날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눈부신 기적과 전변, 놀라운 성과와 커다란 재부를 창조하여 주체조선의 지위와 존엄을 더욱더 만방에 떨쳐왔다.

남을 갈으면 순간에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시시각각 증첩되고 앞길

을 가로막았지만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공화국은 상승계단을 따라 즐거차게 전진하고 있다.

세상에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공화국인민들이 끊임없는 전진과 비약을 안아올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공화국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데 있다.

본사편집국은 나라와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비범한 정도로 이 땅위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놀라운 성과와 기적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업적을 이번호부터 글과 사진으로 펼쳐보려고 한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실것을 받기하시고 손수 도안까지 그려가시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사소한 손색도 없이 꾸러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셨다.

인민들이 아무 때나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도 드리고 휴식도 할수 있게 금수산태양궁전주변을 공원으로 잘 꾸러도록 하기 위해 설계형상안을 지도하시였으며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으시고 태양의 성지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죽대국상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신 곳이 없어 더욱 비통해하며 목놓아울던 인민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시려고 만수대언덕과 만수대창작사,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모자이크 벽화들을 정중히 모시도록 해주셨다.

진정 고결한 총정심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주체의 태양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던 뜻깊은 시각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와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천명하시였다.

그이의 이 선언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길에서 단 한치의 편차도, 단 한결음의 담보도 없음을 철석의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대로

현대적인 종합방송사, 삼천리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그이께서는 어느 공장을 찾으시어도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찰하였는가부터 알아보시군 하시였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창조물들이 일떠설 때마다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걱정

에 겨워 말씀하군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은 온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 위업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고계신다.

력히 확충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현명한 투쟁방침들을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대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며 우리 겨레를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이 귀중한 좌우명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하기에도 외국의 TV방송은 《김정은 각국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하신 것처럼 조선을 부강번영하는 강국으로, 조선인민을 현재에 가장 명명한 인민으로 이끌어주시겠으며 그이는 새로운 령도풍모를 보여주실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영생은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총직한 후계자에 의하여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바라는 절절한 심정을 뜨겁게 읽으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민족의 대국상으로 온 나라 인민이 비분해 몸부림치던 그때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을 떠난 장군님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장군님은 곧 수령님이시라고 굳게 믿어온 우리 인민들이므로 장군님을 수령님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모시는데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요구와 념원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정신적기둥, 마음의 구심점으로 더욱 빛을 뿌려도록 하시는데 한층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시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이 사는 그 어디에나 모셔져 빛나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며 존엄높고 행복인민으로 되게 해주시려는 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뜻이고 념원이였다.

이 숭고한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이 땅위에 인민사랑의 숭고한 역사를 변함없이 펼쳐가고계시는분이 우리의 자애로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조국은 참다운 인민의 조국, 민족자주의 조국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보람찬 삶을 향유하고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를 떠나 나라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은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강권과 전횡, 간섭에 의하여 국권이 짓밟히고 인민들이 굴욕적인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비극적인 현실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자주적대세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있다.

일본에서 다음주에 자민당총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다음주에 자민당총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다음주에 자민당총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다음주에 자민당총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

인민의 조국, 민족자주의 조국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조국은 참다운 인민의 조국, 민족자주의 조국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며 안정된 생활과 보람찬 삶을 향유하고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를 떠나 나라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은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강권과 전횡, 간섭에 의하여 국권이 짓밟히고 인민들이 굴욕적인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비극적인 현실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자주적대세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있다.

일본에서 다음주에 자민당총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다음주에 자민당총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다음주에 자민당총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다음주에 자민당총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



향후 일본이 감질은

권력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남조선정치판



제100회 창당대회

남조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 라고 하는 《국민의 힘》(이하 《국힘》)을 둘러싼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다. 날로 격화되는 속에 진보당,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까지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진보정당들과 민주로총이 《불평등체제타파》를 위한 민주로총, 진보정당 2022대선공동대응기구》라는 것을 조직하고 《대선》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통해 후보단일화까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고 하면서 《진보연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체세력화를 꾀하고있다》. 《5개 진보정당과 민주로총의 대선공동기구를 구축하는 기동전세력》이라고 전하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각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정세변동과 각종 부정부패의혹에 대한 배신과 반발에 따른 선택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지난 《대선》

때 《정부》는 로동계의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등을 약속했지만 악성전염병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악화를 구실로 어긋나지 못했다. 부동산가격폭등과 경기침체 등 정책실패에 대한 민심의 불만 또한 간단치 않았다 한다.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범죄와 《대선》에 비호보라는자의 고발사주의혹과 처, 장모의 부동산투기의혹 및 주가지의혹 등 각종 부정부패의혹에 휩싸인 《국민의 힘》도 다들바라다. 제 목은 안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인다고 아우러한 정책적대안 없이 사사건건 《정부》를 몰고다니는 보수야당을 두고 각계에서는 《동문은 개가 겨우 개를 본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만든 현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의 힘》의원들이 가진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라는 비난이 비발치고있다고 한다.

이로부터 남조선의 군소정당들은 이번 《대선》의 독자세력화를 통해 《시민들과 손을 잡고 이런 불평등사회를 만들어낸 거대량당에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하고있다.

선거경쟁인가 선거전쟁인가

이 땅을 뜨겁게 달구던 폭염도 물러 갈등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고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 남조선정국의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있다. 그러나 권력야심가들의 르고있다.

《싸움군을 뽑는 선거》

앞으로 있게 될 《대선》에 여당의 재집권이나, 야당의 의 《정권》교체나 하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인 선거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의 선거개입의혹사건과 리재명의 대장동개발특혜의혹으로 맞불질이 한창이다.

여당은 여전히 《검찰과 야당이 유착된 선거개입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부정부패》로 몰아가고 《국민의 힘》은 이번 선거의 배후에 정보원이 있다는 《정보원 대선개입》론을 내놨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국민의 힘》 대선주자인 윤고발사주의혹으로 시작된 정치권 공방이 정보원대선개입의혹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의혹과 정보원 원

《돌고래》나 《무야홍》이냐

지금과 같은 토론회에서 돌고래는 윤석열을 《보수계열의 장본인》, 《현 정권의 앞잡이》라고 사정없이 공격하고있다.

《무야홍》(무조건 야권후보는 홍준표를 지지하며 기세를 올리고있는 홍준표는 윤석열의 고발사주의혹이 터지자 때를 만난듯이 후보사퇴를 주장하며 물고늘어

《배신자》들의 선거경쟁

남조선 여야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여 들어가는 오명이 있다. 바로 《배신자》, 《변절자》라는 딱지다.

특히 《국민의 힘》후보들인 홍준표와 류승민은 보수세력들로부터 《위기에 처한 당을 분열시킨 역적》, 《박근혜를

말은 곧 사람의 품격이라고 한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취미, 지식수준과 수양정도를 알 수 있게끔 될 것이다.

남조선에서 《1일1방언》, 《도리도리》, 《찍벌》이라는 오명으로 불리우는 윤석열이 최근의 한 말을 들어 보면 그의 인품을 알 수 있고 그런 인품을 《대선》후보로 내세운 《국민의 힘》의 수준정도를 잘 알 수 있다.

《도리도리》의 망언기록

은 위촉되기때문에 걸어서 나누어줄거면 안걸는게 좋다》(7월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빠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7월 2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먹어서 병들지 않는다 면 없는 사람들은 불량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을 소유함》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있다》(8월 1일 여의도에서 열린 청년정책토론회에서)

《내성적인유호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남녀사이

의 건전한 교제를 정서적으로 막고있는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다.》(《집은 생활필수품이다.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생활필수품에 파세를 하는것은 정상이 아니다》)(8월 2일 《국민의 힘》조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손발로든 아프리카나 하는것이다.》(《인문학이라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분야

《무모한 무기개발이 군미정쟁을 초래했다》

남조선에서 당국의 무모한 호전적책동으로 북남선언들이 사문화되고 《세로만 안보불안》에 직면하였다는 불만과 비난이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최근 당국자가 잠수함탄도 미사일발사시험참관때 동족을 경고한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저들의 《정책기조가 바뀐것은 아니다.》, 《우리측이 먼저 북을 자극할 의도는 없다》고 변명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의 발언내용들을 보도 하였다.

이와 함께 당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함께 초음속함미사일, 고위력탄도미사일개발성공, 고체우주발사체기술 확보 등을 9.19합의 3주년을 며칠 앞두고 공개한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평도 여러 차례 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마스크뒤에 감춰진 위태로운 거품경제》

세계를 휩쓸고있는 《COVID-19》사태는 남조선경제에도 심대한 해일로 들이닥치고있다.

남조선잡지 《월간중앙》이 전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분석평가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우선 채무규모가 급격히 증대되었다고 한다.

2021년 상반기에 저소득층 가정 60%이상 수입이 하락하여 빛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은 령악한 상황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에서 대출한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8.8%나 증가하여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한다.

《국가채무》도 2019년에 37.7%였던것이 2020년에는 43.9%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가계부채증가와 물가폭등으로 인플레이션까지 나라

《팬드위치신세가 될수 있다》

이밖에도 부자와 빈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등 각 분야의 양극화가 사상최악으로 치닫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당국이 경제가 호황기를 맞이한것처럼 광고하고있지만 그위에 가리워진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외면하고있다. 악성전염병사태는 사람들의 얼굴뿐 아니라 경제에도 마스크를 씌웠다. 남조선경제는 마스크뒤에 감춰진 위태로운 거품경제이라고 평하고있다.

리 전 봉

팽창되는 무기고, 악화되는 생활고

남조선에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의 대류행으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있으며 그로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자들도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도탄에 빠져 허우적이는 민생을 외면하고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낭진하며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전쟁연습과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있어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당국이 올해 들어와서만도 국방예산과 남조선강경 미군

및 개발분야에산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약 42억 5 000만US\$의 자금을 지출하기로 하였다며 하면서 이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스스로 부정하고 군사적진장을 격화시키는 우매한 짓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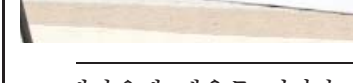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경향신문》, 《뉴스1》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미국이 지난 15일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인디아 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세 나

《한미관계는 바뀌어온 건 아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한미관계는 바뀌어온 건 아니다》는 미국과 《핵심리익 상호존중》을 거론하며 중국성 발언을 하고있는 중국정부사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수 있다. 자칫 샌드위치신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본사기자 황금숙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청의대 앞 주최: 전국민중노동조합

《한미관계는 바뀌어온 건 아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한미관계는 바뀌어온 건 아니다》는 미국과 《핵심리익 상호존중》을 거론하며 중국성 발언을 하고있는 중국정부사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수 있다. 자칫 샌드위치신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본사기자 황금숙

심화되는 갈등과 차별, 넘쳐나는 사랑과 정

지금 남조선에서 《젠더갈등》(남녀갈등)이란 말이 유행되고있다. 지난 시기 인터넷에서 흥미분위로 서로를 비방하는것으로 그쳤던 남녀간의 갈등이 오늘날에는 대학과 기업, 체육과 문화계 지어 정계 등 사회 각계로 확대되고있다고 한다.

참으로 갈등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갈등, 리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사회갈등, 경제갈등... 나중엔 이웃들간 소송때문에 다투는 층간소음갈등도 있다. 하다면 왜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겠는가.

현재 남조선에서 20, 30대 청년들은 가혹한 생존경쟁과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차별, 취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 각종 차별속에서 성장해나다니 소용과 협력, 남에 대한 배려보다 극단한 개인주의 성질은 그들로 부당한 성차별행위라고 받아들여왔다.

협오사상을 수시로 접하고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분야에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차례지는것을 보면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가중시키고있다. 하여 남녀청년들이 《한남충》(남조선남자들은 별래와 같다는 뜻), 《김치녀》(남자에게 기생하는 여자), 《메미니스트》(남성우월주의자), 《마초》(남성우월주의자) 등으로 서로 헐뜯다 못해 인터넷에서 집단적으로 인신공격에 나서기 하면 살인, 성폭력 등 각종 범죄까지 저지르고있다고 한다.

국도의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 기초한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는 남조선사회에 대한 환멸이 커갈수록,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 밑에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화국의 현실이 더욱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다.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보아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자기보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는 마음이 차고넘친다. 평양시의화대학에 다니는

18살 남 치녀대학생 박우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앓은병이로 바깥출입을 못하던 그였다.

평양시의화대학에 다니는 18살 남 치녀대학생 박우인(가운데) 18살 남 치녀대학생 박우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앓은병이로 바깥출입을 못하던 그였다.



성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어서 업혀라. 학교에 가자.》 지금으로부터 11년전, 우인에 대한 말을 듣고 그를 찾아온 한 녀교원의 정겨운 목소리였다.

그때부터 계산마을에서 소학교로 뻗은 소로길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우인이를 업은 녀교원의 발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그가 바로 형제산구역 제산소학교 함옥숙교원이었다.

우인에게 열정을 주는 법으로부터 우리 글읽기와 셈계기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의 성적이 오를 때면 누구보다 기뻐하던 녀교원, 수업휴식시간이면 그의 다리를 자기 무릎위에 올려놓고 주물러주기도 하고 영양식품도 성의껏 만들어주곤 하였다.

수년세월 한 학생을 위해 진정을 다 바친 함옥숙교원과 남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뛰어다니던 다정한 이웃들, 평양의화대학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어린 노력끝에 우인은 끝내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다.

대학생으로 성장한 우인을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야심없는 사랑과 진정을 기울이고있다고 한다. 늘 그의 건강상태를 관심하며 세심히 돌봐주고 기숙사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한것이 있을세라 보살피주는 대학과 학부의 일군들과 학급학생들, 기숙사관리원어머니...

사람들사이에 반목질시하고 인신모욕까지 해가면서 혐오하는 풍조가 만연한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현실이 아닐수 없다. 사람들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고락을 함께 나누며 사는 공화국이야말로 인민의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겠는가.

풍요한 가을을 맞이한 조국의 전야

공화국의 전야가 붉고있다.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자신들이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자각한 각지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불리한 기후조건과 어려움을 극복하여서도 올해농사결속을 잘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농업성의 한 일군은 《은나라의 강력한 지원밑에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알곡증산을 위한 활기를 띠고있는 농장들에서도 가을걷이를 제때에 해제낄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놓는데 만족하지 않고 수확고를 최대로 높일수 있게 논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이제 맞게 도농협력연구소들에서도 가을걷이전까지 알곡수확고를 최대로 높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들을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해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서해지구의 농촌들에서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땅을 더 가운 파기를 한일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일수 있게 로력과 기계수단보장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한일혁

본사기자 김춘경

본사기자

본사기자



사외의식에서

본사기자 한일혁

본사기자 김춘경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꽃속에, 록음속에 사는 가정

문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겨레는 오래전부터 꽃을 사랑하며 소중히 키워왔다.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의 정서생활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화초가꾸기이다.

꽃은 사람에게 고상하고 품만한 정서를 안겨준다. 꽃밭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키우며 널리 보급하는 풍경이 펼쳐지는 속에 가정들에서도 갖가지 화초를 심어 풍만하면서도 정서적인 생활을 마련하고있다.

꽃집으로 널리 알려진 대성

구역 고산동에서 살고있는 리진호의 가정에서는 수백그루의 식물들을 가꾸고있는데 이것은 온 가정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되고있다.

리진호의 아버지도 식물을 남달리 사랑했다고 한다. 원림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공장에도 심고 집안에도 많이 심어 그윽한 꽃향이 차 넘치게 했다던것이였다.

수십년전에 아버지가 심었다는 나무의 가지다듬기를 해주면서 그는 나무를 심은 다음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가지다듬기를 해주면 나무의 개체적인 미가 더 잘 살아날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당장 가지치기를 하면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애국심이 움드고 자라나게 된다고 하면서 어린 자식에게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고있다고, 자기도 어려서부터 물초롱을 다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화초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아버지 대한 추억을 더듬었다.

산림연구원 분재작업반에서 일하고있는 리진호의 가정에는 많은 분재들이 있었다. 결국 분재가꾸기에 대한 그의 연구는 일터에서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계속되고있는 셈이었다.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는 뜨락

마을사람들 누구나 《꽃집》이라고 부르는 리진호가정을 찾는것은 어렵지 않았다. 담장에 출렁미덩굴이 우거진 고산동 47인민반의 아담한 단층살림집에 들어서면 기자는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이 우거진 풍치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다양한 종류의 화초들, 봄이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 나무들, 사계절 관상효과를 주는 단풍나무분재...

한그루한그루의 나무와 활짝 핀 꽃들, 자연미가 나뉠수 있는 울바자며 바닥에 깔색블록에도 집주인의 정성이 깃들여있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여기에 금잉어들이 노니는 작은 못과 인공폭포까지 있어 집트락이리보다 잘 꾸러진 정원을 방불케 했다. 기자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크지 않은 뜨락을 둘러보았다.

경관적가치를 자아낼수 있게

꽃을 가꾸기보다 꽃과 함께 사는것이 아닐까요.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서 꽃과 나무가 잘 자라는것을 볼 때면 힘이 솟고 꽃처럼 생활을 아름답게 꾸러갈 결심이 굳어진다.

그런 마음들이 흐르는 가정의 분위기는 언제나 밝고 생기발랄하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리진호는 말한다. 《호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은 자기 집들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향토애, 조국애를 소중히 간직하고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심어 우리 사는 집과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꾸러가겠습니다.》

보석과도 같은 애국의 마음이 자랑만이 되어서인가 활짝 피어 웃는 집들안의 꽃송이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이렇듯 품만한 정서를 안겨주는 화초가꾸기와 더불어 애국의 향기, 행복의 향기가 차 넘치는 생활은 얼마나 소중한가

본사기자 롬복식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분재가꾸기는 시이고 노래이며 예술

하면서도 공예사와 같은 높은 기능을 소유하고있다.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을 부지런히 오가며 《화초재배》, 《분재와 분경만들기》를 비롯한 수많은 도서와 자료들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식물들 가꾸기 위해 애쓰고있는 그였다.

관상적가치가 있는 식물들

관상적가치가 있는 식물들

관상적가치가 있는 식물들

관상적가치가 있는 식물들

관상적가치가 있는 식물들

관상적가치가 있는 식물들

관상적가치가 있는 식물들

